

12월의 기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17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2017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 목사), 이금란, 이태원(이태원 내과의원), 원소선, 정경자, 함석숙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창조적 기적을 가져오는 4차원의 삶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Maxwell Maltz)는 각종 상담과 수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굴의 성형이 아니라, '마음의 성형수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 심리학, 첨단 두뇌 과학인 사이버네틱스를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적용하여 성공 실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몰두했고, 그 실천 프로그램을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반세기 동안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의해 그 현실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성공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꿈꾸게 된다. 꿈꾸면 말하게 된다. 말하면 이뤄진다”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성공합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꿈을 믿음을 생산합니다. 또한 꿈이 있으면 반드시 꿈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마음속에 꿈꾸고 믿고 말하면 없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모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소원하고 꿈꾸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창조적 기적을 이루며 4차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Nov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 보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세계선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성회 이틀간 인도 전역에서 연인원 100만여 명 모여



조용기 목사의 복음을 통한 민간외교는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용기 목사는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과 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민간 외교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복음을 통한 민간 외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조용기 목사의 선교사역과 성령운동을 지원하는 선교전문기구로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2000년 3월 28일 창립되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해외성회를 통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성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2012년에 뉴 인디아 하나님의 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하이데라바드대성회가 '평화의 축제'라는 주제로 12월 28,29일 양일간 연인원 10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데라바드시 외곽에 마련된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치뤄졌다.

첫날 50만여 명의 현지인이 운집한 가

운데 개막된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성회는 하이데라바드 역사상 가장 큰 개신교 대집회로 기록됐다. 영어와 힌두어 그리고 남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언어인 텔루구로 동시통역된 이번 성회에는 펀자브, 첸나이, 델리, 카르나타카 등 인도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파키스탄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회장 란짓 아브라함 목사(인도오순절교회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른 첫날 성회에는 순복음강남교회 한국무용단이 한국전통 무용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성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등단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임을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폐병으로 죽을 직전에서 치유 받은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둘째 날 설교에서는 4차원 영성을 통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해 넣을 것을 강조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조용기 목사는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다. 광야와 사람들만 계산해 넣었다. 하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며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을 인생에 계산해 넣을 것을 강조했다.

첫날 수만명이 결신한 가운데 인도 북부지역에서 온 무슬림 1000여 명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두 손을 높이 들며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회가 끝난 직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로 은혜를 나눴다.

성회를 주관한 란짓 아브라함 목사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성회에 큰 관심을 보여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허가가 나온 것부터가 기적이었다. 베니힌 목사의 불참으로 염려했으나 기대 이상으로 훨씬 많은 힌두교인들이 참석했다”고 밝히며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성회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도 집회였다고 평가했다.

힌두교에서 개종한 바브르는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인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인도 하이데라바드 성회는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지배하는 인도 땅에 사회적인 계급 차이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지 못하는 대부분의 빈민층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과 믿음 그리고 소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꿈의 싸움

싸움은 꿈의 싸움인 것입니다. 적이 어떤 상대인지 계산해볼 때, 골리앗은 쉬운 전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주부가 부엌 지팡이로 개를 때리듯이 내 단칼에 다윗을 베어버리겠다고 마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꿈을 달리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꿈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나 염소 떼의 새끼를 물고 가면 달려가서 빼앗는데 이놈도 꿈과 사자 중 하나처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원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물뿔들을 하나님은 미사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하여 건너가 적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면서 땅에서 돌맹이 다섯 개를 잡아넣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 돌맹이 하나면 될 것인데 왜 다섯 개를 집어넣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의 가족이 나오면 포조러 다 때려잡으려고 다섯 개의 돌맹이를 포켓에 넣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늘 연습했기 때문에 그가 물뿔들을 던지면 정통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골리앗 잡기 힘든 것은 골리앗이 철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철갑모를 썼으니까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팔다리에 돌이 맞는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직 눈과 눈 사이에만 틈이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맹이가 날아가더니 그 이마에 박혀 그 큰 짐승같은 골리앗이 별떡 차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까지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삼차원의 철이나 쇠로 된 무기를 손

가나안의 전쟁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2-37절)

에 들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 친 것입니다.

2. 믿음의 승리

다윗이 가져온 대승리는 달아나고 숨던 이스라엘 군대들을 사기 백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습니다. 보통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대승리인 것입니다.

승기 충성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무엘상 17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 가지고서 그를 끈으로 묶어서 어깨에 걸머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꿈, 믿음의 경험은 현재 자기의 황금 같은 믿음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그 마음에 높고 깊은 담력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경험한 그 경험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문제에 부딪힐 때 굉장한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굉장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경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경험을 통한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 다. 이 분은 정밀검진 결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22일에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수술을 할 때 검사를 해 보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는 백 명 중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고 말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 참 기가 막히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병을 이길 것을 꿈과 믿음을 가지면 이런 기적도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3. 이렇게 믿으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을 잘 읽고 마음에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옛날 기록으로 두지 말고 내 것으로 이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담력을 가지고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더러움을 다 청산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을 다 멀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려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슴속에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천국 내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룩한 승리를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꿈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입으로 선언하면 성령은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꿈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 삶가운데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러시아 목회자 일행 환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11월 14일 CCMM 빌딩에서 러시아 목회자들과 만나 환담했다. 세르게이 목사를 비롯한 러시아 목회자들은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활동을 위해 국제선교서밋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예방하게 됐다.

러시아 오순절교단 선교부 부대표인 세르게이 목사와 블라지미르 목사, 알렉산드르 목사 등과 함께 한국에서 러시아인 및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아르파모노브 목사와 엘레나 선교사, 이들의 인솔을 맡은 우동수 선교사(예장 합동), 올림픽위원회 윤덕신 목사 등이 함께 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들의 선교사역에 대해 듣고 한국과 러시아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했다.

최근 러시아의 개신교 선교 사역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후 1년

이 지나면서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마주하는 선교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 6일 테러방지법(일명 야로보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를 막는다. 신앙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전도할 자유는 금해 '반선교법'(Anti-Missionary Law)으로도 불린다.

테러방지법은 단체나 조직 명칭, 주소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선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책이나 전도지 같은 출력물, 음향물이나 시각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완전하게 적거나 틀린 부분이 있어도 처



벌 받는다. 러시아인의 선교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선교행위도 처벌한다. 외국인의 경우 테러방지법에 따라 추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교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왔다. 반드시 온 러시아 땅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게로 돌아와 영광 돌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

오사카순복음교회 가을 특별축복성회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개신교 155년의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8%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 가톨릭 신자의 수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감안 하면 개신교인은 일본인구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거쳐간 많은 외국의 선교학자들은 하나 같이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복음의 뿌리는 좀처럼 내리지지 않는 것이 일본선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가 11월 3일 오사카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가을 특별축복성회의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가을 특별축복성회는 오사카순복음교회에서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이 주관하여 열린 성회였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마태복음6장 25절에서 34까지의 본문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날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찬양하였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외적으로는 재물이고 내적으로는 염려이다. 염려는 마귀에게 최강의 무기요 최고의 무기이다. 우리는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려는 마치 독과 같아서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들고,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염려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염려하게 되면 미래의 문이 닫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래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그 문이 닫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염려는 우리 믿음 생활의 원수요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성회에는 관서지방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